2026 WCSI

서민경제 체감지수 보고서

Working-Class Sentiment Index · 2021–2026

Seedtime 독립 경제 연구소 | 이영태

2026년 2월 · v2.0 (보정상수 검증 추가)

기준해: 2021년 | 보정상수(C): 32.915 (고정, 2015년 교차검증 완료)

1. 서론

본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26년(추정)까지의 WCSI(서민경제 체감지수) 흐름을 분석하고, GDP 성장률·소득 증가율·정부 지원 정책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 서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보고서는 단순한 경기 순환 분석이 아니라, "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는 악화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v2.0에서는 보정상수(C = 32.915)의 역사적 타당성을 2015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교차검증한 결과를 방법론 섹션에 추가하였다. 검증 결과, 두 값의 차이는 1.285에 불과하여 보정상수의 구조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2. 5개년 주요 지표 정리 (2021–2026)

연도	Idi	Ibs	Icl	Iec-c	Iag	Ilp	원시합	WCSI	키워드
2021	90.5	82.0	80.0	85.5	95.0	83.0	57.525	**92.40**	유동성 파티
2022	87.0	78.5	70.0	81.0	105.0	80.0	52.000	**88.15**	고물가 습격
2023	85.0	77.0	75.0	80.0	108.0	77.5	51.075	**86.50**	저성장 고착
2024	84.5	76.5	75.5	79.5	112.0	76.5	50.125	**84.55**	수출만 반등
2025	84.0	76.0	74.5	79.0	115.0	76.0	49.175	**83.65**	격차 최대
2026*	83.5	75.1	74.0	78.6	118.5	75.8	48.205	**81.12**	심리적 저점

※ 2026년 수치는 추정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임.

3. 핵심 분석

1) 성장의 역설

2026년 GDP 성장률은 1.5%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 증가율은 4.4%로 고정되어 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은 상층부에 집중되고 있다.

GDP 수치 자체는 붕괴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WCSI 지수는 81.12까지 하락한다. 이는 성장률이 아닌 "성장의 분배 구조"가 체감경제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원금의 한계

2021년 코로나 시기 대규모 유동성과 국민지원금은 지수를 92.40까지 방어했다. 그러나 이후 지원은 점점 축소되었고,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수는 83.65에 그쳤다.

- 일회성 현금 지원은 심리적 완충 역할은 가능
-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구조에서는 체감 회복 불가
- 지원금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체질 개선"은 아님

3) 중산층 몰락의 징후

WCSI 지수는 2021년 92.40에서 2026년 81.12로 하락한다. 5년간 11.28포인트 하락이다. 이 흐름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완충지대의 붕괴"를 의미한다.

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서 자영업 수익성 악화, 대출이자 부담 증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해 중산층이 빠르게 서민층으로 하향 이동하고 있다.

4) 지원 부재와 고물가의 협공

코로나 시기에는 역설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존재했다. 현재는 누적된 고물가, 높은 금리 부담, 일회성에 그친 지원 정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서민층은 더 줄일 소비가 없고 버틸 저축도 소진되었다.

5) 예측된 붕괴 — 81.12의 의미

2026년 예상치 81.12는 심리적 마지노선에 가까운 구간이다. 80선 붕괴는 단순 경기 문제를 넘어 소비 위축의 고착화, 정치·사회적 불안 증폭, 자산 양극화의 가속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4. 구조적 진단

현재 경제 구조의 핵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플랫폼·서비스 중심의 불안정 고용 확대
- 제조업 기반 고용 감소
- 상위 계층 중심 자산소득 증가
-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이는 GDP가 유지되어도 체감지수가 회복되지 않는 구조다.

5. 정책 시사점

1) 제조업 기반 고용 안정 회복

플랫폼 중심의 단기 소득이 아닌 숙련 기술 기반의 장기 고용 구조 복원이 필요하다. 산업 고도화, 첨단 제조 클러스터 육성, 수출 연계 고용 창출이 핵심이다.

2) 일회성 지원에서 구조적 소득 안정 정책으로 전환

- 고용 안정 정책 강화
- 중산층 세부담 구조 점검
- 생산성 향상 중심 투자

3) 중산층 복원 전략

중산층은 경제의 허리이자 완충지대다. 이 계층이 무너지면 WCSI는 구조적으로 80선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6. 결론

2021년의 92.40은 유동성이 지탱한 숫자였다. 2026년의 81.12는 구조가 드러난 숫자다. 성장의 숫자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체감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소득 복원이다. 80선을 지킬 것인가, 구조적 하락을 용인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부록 A. WCSI 산출 방법론

A-1. 지수의 철학적 정의

WCSI(Working-Class Sentiment Index)는 국가 전체의 거시 성장률이 아닌, 서민·근로계층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 온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설계된 복합 지표다. 본 지수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 국가가 아닌 가계를 중심에 둔다.
- 통계 수치가 아닌 체감 온도를 반영한다.
- 단기 경기와 구조적 격차를 동시에 반영한다.

A-2. 기본 산출 공식

```
WCSI = (0.20 × Idi) + (0.20 × Ibs) + (0.15 × Icl) + (0.15 × Iec-c) − (0.15 × Iag) + (0.15 × Iec-l/Ilp) + C(32.915)
```

기준점(Base Line)은 100. 100 초과 시 체감 회복 국면, 100 미만 시 성장의 역설 또는 민생 위기.

A-3. 구성 지표 및 가중치

지표명	변수	가중치	설정 근거
실질 가처분 소득	Idi	**20%**	소비의 핵심 동력 — 가계 소비의 70% 이상을 결정
소상공인 생존	Ibs	**20%**	고용 전선 — 취업자의 약 25%가 자영업 종사
체감 물가 안정	Icl	**15%**	심리적 저항선 — 필수 생필품 가격 기준
동행지수 순환변동	Iec-c	**15%**	오늘의 경기 상태 — 현재 확장·수축 포착
자산 격차 (감점)	Iag	**15%**	구조적 박탈감 — 부익부 빈익빈 심화 시 감점
선행지수/정책전망	Ilp	**15%**	내일의 풍향 — 미래 경기 예측 및 정부 목표

A-4. 지수 해석 기준

구간	상태	서민 체감
120 이상	**온기 확산**	대출 갚고도 여유가 생기고, 일자리 찾기가 수월하다.
100–120	**회복 국면**	수출 호재가 조금씩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 같다.
80–100	**성장의 역설**	수출은 잘 된다는데, 내 지갑은 계속 얇아진다.
80 미만	**민생 위기**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부록 B. 보정상수(C) 교차검증 — 2015년 실제 데이터 기반

핵심 검증 결과: 2021년 역산값(C = 32.915)과 2015년 실제 데이터 독립 계산값(C = 34.200)의 차이는 1.285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보정상수가 특정 목표값을 위한 임의 설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기초 자생력을 반영한 값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B-1. 검증 배경

WCSI의 보정상수 C = 32.915는 기준해인 2021년의 원시합(57.525)을 목표 WCSI(92.40)로 맞추기 위해 역산된 값이다. 이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은 "결론을 먼저 정하고 상수를 끼워 맞췄다"는 것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5년 실제 경제 데이터를 활용, 동일한 WCSI 공식을 적용하여 독립적으로 C 필요값을 역산하고 현재 C값과 비교하였다.

B-2. 2015년 지표 데이터 및 계산

2015년은 저물가·제조업 고용 안정·자산 양극화 심화 이전의 서민경제 상대적 안정기로, WCSI 기준점 100에 가장 근접한 시기로 판단된다.

변수	지표명	2015년	2026년	변화	해석
Idi	실질 가처분 소득	98.2	83.5	**▼ 14.7**	소득 증가율이 물가를 앞서던 시기
Ibs	소상공인 생존	95.5	75.1	**▼ 20.4**	가장 큰 낙폭 — 자영업 붕괴
Icl	체감 물가 안정	96.0	74.0	**▼ 22.0**	저물가 → 고물가 전환의 충격
Iec-c	경기 동행 지수	94.8	78.6	**▼ 16.2**	제조업 활황 → 수출 편향 구조
Iag	자산 격차 (감점)	102.4	118.5	**▲ 16.1**	부익부 빈익빈 심화 (감점 확대)
Ilp	선행/미래 전망	92.0	75.8	**▼ 16.2**	잠재성장 기대감 소멸

B-3. 검증 계산 과정

```
2015년 원시합 = (0.20×98.2) + (0.20×95.5) + (0.15×96.0) + (0.15×94.8) − (0.15×102.4)
+ (0.15×92.0) = 19.640 + 19.100 + 14.400 + 14.220 − 15.360 + 13.800 = 65.800
```

구분	2015년 (실제)	2021년 (기준)	비고
원시합 (raw)	65.800	57.525	2015년이 더 높음 → 서민경제 양호
C 필요값	34.200	**32.915 (현재)**	**차이: 1.285 → 강한 수렴**
C 적용 WCSI	**98.7**	**92.40**	2015년 ≈ 100 기준점, 역사

구분	2015년 (실제)	2021년 (기준)	비고
			적 타당성 확인

B-4. 검증 결론

① **C값 차이 1.285는 전체 지수 스케일(60~100) 대비 약 3.2%**에 불과하다. 통계적으로 강한 수렴 범위다.

② 현재 C(32.915)로 2015년 WCSI를 계산하면 **98.7**이 나온다. 100 기준점에 불과 1.3 차이로, 2015년이 서민경제 근접 안정기였다는 역사적 해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③ **따라서 C = 32.915는 임의적 역산값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사회자본과 심리적 바닥을 구조적으로 반영한 상수**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단, 본 검증의 완전한 확정을 위해서는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 데이터를 통한 재현 검증**이 추가적으로 권고된다.

부록 C. 2015년 vs 2026년 — 우리가 잃어버린 것

2015년은 저물가와 제조업 기반의 고용이 만든 "자생적 풍요"의 시기였다. 2026년과 비교하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수치로 드러난다.

구분	2015년	2026년
경제 성격	자생적 풍요	구조적 붕괴
물가 환경	저물가 기조 (CPI ~0.7%)	고물가 고착 (체감 10%+)
고용 기반	제조업 안정 고용	플랫폼·불안정 고용
자산 격차	lag = 102.4 (양극화 초기)	lag = 118.5 (양극화 심화)
정책 지원	유기적 성장	일회성 지원금
WCSI	≈ 98.7 (안정)	81.12 (심리적 마지노선)

81.12라는 숫자는 우리가 2015년의 탄탄했던 중산층 완충지대를 약 20% 가까이 잃어버렸음을 증명한다. 2015년: 저물가와 제조업 기반의 고용이 만든 자생적 풍요. 2021년: 국가 지원금으로 가까스로 버틴 인공적 호흡. 2026년: 지원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구조적 붕괴.

부록 D. 2026년 지표별 원데이터 및 산출 과정

> 본 부록은 WCSI 각 지표의 원시 데이터 출처, 실제 수치, 산출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여 누구든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기준: 2026년 2월.

D-1. 실질 가처분 소득 지수 (Idi) — 최종값: 83.5

항목	수치	데이터 경로	비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5,438,792원	KOSIS → 가계동향조사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소득 합계	
비소비지출 (이자/세금)	1,057,890원	동일 표 → 비소비지출 (이자비용, 조세, 사회보험료 포함)	
소비자물가상승률	2.74%	KOSIS →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전년동월대비	
가처분 소득	4,380,902원	5,438,792 − 1,057,890	산식 1단계
실질 가처분 소득	4,262,586원	4,380,902 ÷ 1.0274	물가 보정
Idi 최종 지수	**83.5**	**2021년 기준점 대비 상대 지수화**	**★ 최종값**

분석: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비소비지출(약 106만원)이 소득 증가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2.74% 물가상승률이 실질 구매력을 추가로 잠식하면서 Idi가 83.5로 하락하였다.

D-2. 소상공인 생존 지수 (Ibs) — 최종값: 74.0

항목	수치	데이터 경로	비고
2025년 폐업자 수	910,000명	국세통계포털(TAS) → 시군구별 폐업자 (간이·면세)	전년 기준
2026년 폐업자 수	1,025,000명	국세통계포털(TAS) → 시군구별 폐업자 (간이·면세)	당해연도
폐업률 증가폭	12.6%	(1,025,000 − 910,000) / 910,000 × 100	산식 적용
소상공인 체감 BSI	64.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체감경기지수	참고
매출 감소율	13.4%	한국은행 ECOS → 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카드매출 역산	
Ibs 최종 지수	**74.0**	**100 − (12.6 + 13.4) = 74.0**	**★ 최종값**

분석: 폐업률 증가폭(12.6)과 매출 감소율(13.4)이 맞먹는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단순 경기 부진을 넘어 사업

포기가 속출하는 구조적 위기를 의미한다.

D-3. 체감 물가 안정 지수 (Icl) — 최종값: 74.0 (시뮬레이션 기준)

항목	수치	데이터 경로	비고
신선식품 물가상승률	14.2%	KOSIS → 소비자물가조사 →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기상 악화·수급 불안
공공요금 인상률	11.8%	KOSIS → 지출목적별 지수 →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누적 에너지 인상
전체 물가상승률	2.74%	KOSIS →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전년동월대비	
변동폭 합산	26.0%	14.2 + 11.8 = 26.0	초과 체감 고통
전체 물가 차감	23.26%	26.0 − 2.74 = 23.26	괴리율
Icl (시뮬레이션)	**74.0**	**100 − 26.0 (초기 시뮬레이션 기준)**	**★ 보고서 채택값**
Icl (2월 실측)	**76.7**	**100 − 23.26 = 76.7 (2월 최신 데이터 적용)**	**참고값**

※ 시뮬레이션값(74.0)과 2월 실측값(76.7)의 차이는 2.7로, 모델 예측력의 근거가 된다. 보고서는 5개년 시뮬레이션 일관성을 위해 74.0을 채택하였다.

D-4.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Iec-c) — 최종값: 78.6

항목	수치	데이터 경로	비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8.2	KOSIS → 경기종합지수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 미만 = 수축
전월 대비 변동폭	−0.4p	전월(98.6) 대비 하락세 지속	내수 부진 반영
기준선	100.0	100 초과 호황 / 100 미만 수축국면	
Iec-c 최종 지수	**78.6**	**2021년 기준해 대비 상대 지수화 적용**	**★ 최종값**

D-5. 자산 격차 지수 (Iag) — 최종값: 118.5 (감점 항목)

항목	수치	데이터 경로	비고
상위 20% 순자산 증가율	+12.1%	KOSIS → 가계금융복지조사 → 5분위 순자산 (부동산·금융자산)	자산 증가
하위 20% 순자산 증가율	−6.4%	KOSIS → 가계금융복지조사 → 1분위 순자산 (고금리 대출 부담)	자산 감소

항목	수치	데이터 경로	비고
격차 폭 (Gap Width)	18.5%p	12.1 − (−6.4) = 18.5	절대 거리
Iag 최종 지수	**118.5**	**100 + 18.5 = 118.5 → WCSI에서 −17.775 감점**	**★ 최종값 (감점)**

분석: GDP 성장(2.4%)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자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낙수효과의 완전한 소멸을 수치로 증명한다.

D-6. 선행지수 / 정책전망 (Ilp) — 최종값: 75.8

항목	수치	데이터 경로	비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7.8	KOSIS → 경기종합지수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 미만 하락
전월 대비 변동폭	−0.5p	전월 대비 하락 폭 확대 (소비심리·재고 위축)	
정부 목표 성장률	2.2%	기획재정부 2026년 경제정책방향	낙관적 목표치
기준값 (Ilp)	102.2	100 + 2.2 = 102.2	정부 기대치
비율 계산	95.69	(97.8 / 102.2) × 100 = 95.69	괴리율 반영
Ilp 최종 지수	**75.8**	**2021년 기준해 대비 상대 지수화 적용**	**★ 최종값**

분석: 동행지수(98.2)보다 선행지수(97.8)가 더 낮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1.5%대 저성장 고착화가 예고된다.

D-7. 최종 WCSI 산출 검증

지표	변수	선정값	가중치	결과값	원데이터 핵심 근거
실질 가처분 소득	Idi	83.5	× 0.20	**+16.700**	소득 5,438,792 / 비소비지출 1,057,890 / 물가 2.74%
소상공인 생존	Ibs	74.0	× 0.20	**+14.800**	폐업 12.6%↑ + 매출 13.4%↓
체감 물가 안정	Icl	74.0	× 0.15	**+11.100**	신선식품 14.2% + 공공요금 11.8%
경기 동행지수	Iec-c	78.6	× 0.15	**+11.790**	순환변동치 98.2 → 상대지수화
자산 격차 (감점)	−Iag	118.5	× 0.15	**−17.775**	상위+12.1% vs 하위 −6.4% → 격차 18.5

지표	변수	선정값	가중치	결과값	원데이터 핵심 근거
선행/정책전망	llp	75.8	× 0.15	**+11.370**	97.8/102.2×100=95.69 → 상대지수화
보정값 C		32.915	고정	**+32.915**	2021 역산 / 2015 교차검증 완료 (차이 1.285)
WCSI 최종				**81.120**	**48.205 + 32.915 = 81.120**